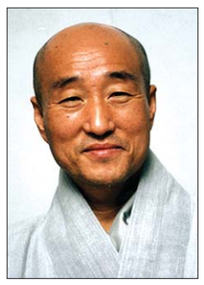
지혜·자비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아쉬움 없는 30년 내다보는 발걸음 시작"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지나간 시간은 얼마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법인가 봅니다. 저희 단체도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낸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하나의 사업을 결산하다보니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올 해는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30년을 내다보는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부의 기본사업인 장기기증 등록사업과 환자돕기 사업, 그리고 헌혈은행 사업들을 보다 확대해 나감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도록 하고, 더불어 불교계 명실상부한 의료복지 분야의 NGO 단체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들이 있지만, 불자들의 앞날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신 분이며, 고통이 없는 세계에 살도록 불자들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실천을 모든 계층·세대로 넓힐터"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파라미타가 올해로 1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협회 결성을 완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간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이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 가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이에 대한 소중한 의식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파라미타는 생명의 존중, 나눔과 봉사를 통한 자비실천을 통해 모든 계층, 세대로 넓혀가겠습니다. 파라미타의 정신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파라미타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타는 세대를 관통하여 이 시대를 향도할 정신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파라미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화꽃의 맑은 향기 사바에 뿌리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전보삼 회장**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대불련 총동문회 여름대회를 통해 결집력과 소속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홀수 달마다 53명찰 대순례법회를 개최해 전국 각지 명찰을 둘러보며 자신의 불성을 되찾는 구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춘계수련대회와 자비실천의 밤 등 활발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매화꽃은 추운 엄동설한을 지나야지 맑은 향기를 토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매화꽃의 정절을 닮아서 맑은 향기를 사바의 온 세상에 뿌립시다.

"국제사회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에 주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국·내외 경제난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기 성찰과 자비심이 요구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온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중앙신도회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정책역량강화, 사회기반확대를 통한 10대 종교사회단체로의 진입, 국제사회참여를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문화재 환수운동, 불교관련 산업분야의 개척, 전통문화 계승보급 등 15가지 주요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 대지의 생명을 움트게 하고, 불자들이 희구하는 모든 발원이 기쁨과 즐거움으로(喜無量心)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慈無量心)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정법 널리 펴는 기축년 되길"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우리 불자들은 작년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의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자들의 노력이 이 땅의 불법을 수호하는 밑거름으로 승화돼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정법수호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종교중립 법제도화'를 이뤄내 우리 사회의 종교간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집은 목수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짓는 것이요, 주인의 돈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인품이 짓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실천으로 이 땅의 종교평화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야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토록 도울 터"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제동 걸리지 않은 상태로 무한정의 팽창만을 추구해온 당연한 결과라는 석학들의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큽니다.

이럴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탐내는 마음, 어리석음,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비롭고 당당한 불자로서 살아갑시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아직은 2년 반의 새내기이지만 내년에도 불자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람되고 실효성 있는 재가불자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당당하게 극복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600만 여성 불자들 조직화 되길"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지난 한해 한국불교계는 많이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결집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숫적으로는 많지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들의 중심에 서서 600만 여성불자들의 전국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웰다잉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화시켜서 질병과 늙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사)지혜로운여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새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걸음 걷듯 불교상담개발 위해 힘쓸 터"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

새해 기축년은 소를 닮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는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특히 소걸음(牛步)은 뚜벅뚜벅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앞서갑니다. 그래서 십이지(十二支)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다고 하지요.

현대불교신문의 역사도 돌이켜보면 우보(牛步)처럼 성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역사 속에 고난도 있었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인내하며 정론직필을 지켜 불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언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상담개발원은 올해로 설립 19년을 맞이합니다. 불교상담개발원 역시 눈에 띄는 일회성의 화려한 행사보다, 불교상담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불교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소걸음 걷듯 천천히, 성실하게 불교상담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무아의 지혜로 어려움 극복하자"

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

오늘날 지구촌 전체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희망과 설레임입니다. 그간 '나'에 집착하여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별심으로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무아(無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불자들부터 남을 탓하기 앞서 주변을 돌아보고,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 **정웅정 회장**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돼 다시 10년 전 냉전시대의 대결적인 남북관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NGO 단체인 (사)좋은벗들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식량상황은 지난 1996년 북한 대홍수 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이후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시급히 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무조건적인 대북식량지원을 단행하고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정진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

(양산 통도사→ 태백 정암사→ 영월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총 750km를 십보일배로 5개월간 순례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희망과 용기로 극복을…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그동안 설악산 봉정암 십보일배 참회기도를 13차례 원만회향하신 부산 초읍동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의 이번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되는 마음으로… 기도가 원만성취되시길 후원합니다.

정진 선우회 도량 정 도 합장 051)637-4466 (성전선원)

■ 출발일시 : 불기 2553년(2009년) 양력 1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 출발장소 : 부산 초읍동 불광사 (☎ 809-1420)

대한불교조계종 정진 선우회 일동

성전선원 정 도 스님　정종사 양 현 스님　금강선원 안 도 스님
금선선원 현 담 스님　불광사 효 천 스님